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총성 없는 전쟁’ 시작됐다

선·후배간 양보 없는 주전경쟁 돌입

김연훈 등 신인들 내야수 도전 거세

“눈빛들이 매섭다.”

29일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서정환 KIA 감독은 훈련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대신했다.

서 감독은 “선수들의 눈빛이 예년과 다르다. 지금 분위기가 한국시리즈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면서 “특히 김주형과 홍세완이 가세한 내야진의 경쟁은 전생이나 다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 감독의 말처럼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스프링캠프장은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특히 내야 경쟁은 뜨겁다는 표현은 부족할 정도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 신인들의 도전에 베테랑들이 응전하는 형국이다.

‘스나이퍼’ 장성호(30)만 1루자리를 보장받았고, 나머지 내야 포지션은 홍세완(29)과 김주형(22), 한규식(31), 김종국

(34), 손지환(29), 이현곤(27)이 경쟁 중이다.

여기에 2007년 신인 2차 2번으로 입단한 내야수 김연훈(23)도 호시탐탐 한 자리를 꿰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안타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된 수비가 장점인 김연훈은 벌써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다. 이들은 남은 내야 3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우선 유격수와 2루수는 김종국과 손지환, 이현곤, 한규식, 김연훈의 싸움으로 좁혀진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밀린 3명은 벤치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5명 모두 입술이 터질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홍세완과 김주형이 격돌한 3루 경쟁도 불만하다.

3년만에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홍세완은 훈련 이외에는 외출조차 삼가할 정도로 독기를 내뿜고 있다.

서 감독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팀에 선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계훈련에 참여했고, 스프링캠프 합류 이후에도 밤낮없이 훈련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홍세완의 집념에 혀를 내둘렀다.

이에 질세라 ‘차세대 거포’ 김주형도 2006 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하루에 배팅볼 1천개씩을 때려내는 등 주전자리 잡기에 일찌감치 올인한 상태다.

이같은 치열한 내야경쟁의 배경에는 서 감독의 지능적인 전술이 숨겨져 있다.

서 감독은 이번 스프링캠프에 앞서 ‘김주형 키우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내야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러한 심리전이 선수단에 고스란히 스며든 것.

서 감독은 “지난 시즌 약한 내야진 때문에 힘들었다. 올해도 전력적으로 보강된 게 없다”며 “고민 끝에 (김)주형을 주전 전력으로 내세우는 등 극약 처방을 썼는데, 아직까지 약발이 잘 먹히는 것 같다”고 웃음을 띄웠다.

lucky@kwangju.co.kr



꽃맛 같은 휴식 KIA 선수단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휴식일을 맞아 온천에서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있다. 김진우, 윤석민, 고우석, 한기주(왼쪽부터).

김진우·정 원 “우리 살 뻔했어요”

여기는 미야자키

“다이어트 성공했거든요!” 29일 오전 9시 일본 미야자키에 위치한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 식당.

휴식일인 이날 아침을 챙겨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선 선수들 중 유독 혈색이 진 투수 김진우와 정원이 눈에 띄었다.

지난 11일 광 전지훈련을 떠나기에 앞서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서정환 감독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당했던 이들이다.

서 감독은 당시 비시즌 기간동안 5kg 이상씩 살이 찐 이들에게 “그동안 계엄을 피워서 살이 찐 것”이라며 “캠에서 살을 빼지 못하면 일본 스프링캠프엔 합류

서감독 추상같은 명령에

2주동안 다이어트 돌입

김진우 8kg·정원 5kg ↓

할 생각도 말라”고 엄포성 지시를 내렸었다.

이후 2주일만에 나타난 이들은 서 감독도 놀란만큼 날씬(?)한 몸매로 선수단에 복귀했다.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정원은 “그냥 많이 안 먹고 운동하면 됩니까”라고 답했지만,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된 훈련을 짐작할 수 있었다.

lucky@kwangju.co.kr

여상엽 첫 메달 선물



남자 빙속 5,000m ‘은’ ‘청각장애’ 고병욱 9위

스피드스케이팅 여상엽(한국체대)이 제6회 장춘(長春) 동계아시아안게임 한국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여상엽은 29일 중국 장춘 지린성스피드스케이팅링크에서 펼쳐진 남자 5,000m에서 6분43초34로 결승선을 통과해 일본의 히라코 히로키(6분39초71)에 3초63 뒤지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최근원(의정부시청)은 6분43초86으로 드미트리 바벤코(카자흐스탄·6분43초40)에 0.46초차로 뒤져 동메달을 내렸고, 국제대회 데뷔전을 치른 청각장애 선수 고병욱(불암고)은 6분54초23으로 9위를 차지했다.

여상엽은 인코스에서 출발, 매 바퀴(400m) 랩타임을 31~32초대로 끊어 안정적인 페이스를 펼친 뒤 앞서 경기를 끝낸 최근원(6분43초86)과 나란히 전광관에 1.2위로 이름을 올리고 다음 조 경기결과를 기다렸다.

5조에서 중국의 가오쉐펑이 자신의 올 시즌 최고기록보다 17초 이상 뒤떨어진 6분44초13으로 3위로 밀려 한때 여상엽의 금메달 가능성이 었보였으나 마지막 조로 얼음판을 탄 히라코가 6분39초71로 단숨에 1위로 뛰어 오르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앞서 열린 여자 3,000m에서는 이주연이 4분18초05로 결승선을 통과해 3위에 오른 다바타 마키(일본·4분17초00)에 1초05 뒤지는 기록으로 4위로 밀려 아쉽게 동메달을 놓쳤다.

함께 출전한 노선영(서현고)은 4분18초57로 5위, 이소연(한국체대)은 4분27초81로 9위였다.

중국의 왕페이이는 4분13초08로 종전 아시아 기록(4분15초86)을 무려 2초78나 줄이면서 중국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고, 일본의 호스미 마사코는 4분15초42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아시아안게임

데뷔전을 치른 이주연은 마지막 조 경기를 앞두고 3위를 달리면서 메달의 꿈을 키웠지만 마지막 조에 나선 왕페이가 1위로 치고 오르면서 눈앞에서 메달을 놓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9일 중국 지린성 스피드스케이팅 링크에서 열린 남자 5,000m경기에서 한국의 여상엽이 역주하고 있다. 여상엽은 6분43초34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테니스 이후...

남자 페더러 ‘독주’

여자 세레나 ‘부활’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테니스대회가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81위·미국)를 남녀단식 우승자로 배출하고 14일간 열전을 28일 마무리했다.

남자부에서는 ‘황제’ 페더러의 독주가 지속했고 여자부에서는 부활한 세레나가 2년 만에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차지하며 판도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페더러의 대항마는 없었다 = 페더러의 대항마는 이번 대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강 페더러는 1980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비온 보리 이후 27년 만에 메이저대회 무실세트 우승이라는 신화를 재현했다. 지난해 4번이나 페더러를 물리쳤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하드 코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8강에서 짐을 썼다.

지난 2005년 윈블던 우승 이후 메이저대회에서 7차례 연속 결승에 올라 6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가져간 ‘괴물’ 페더러를 제압할 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레나, 아직 죽지 않았다 = 전성기보다 부쩍 살이 찐 세레나가 호주오픈 정상에 복귀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폭발적인 파워를 앞세워 수많은 경쟁자를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무릎 부상은 그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도리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았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서브, 상대 서브를 무승게 아는 예리한 리턴에 상위 랭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PGA 7연승

뷰익인비테이셔널 우승...위창수 9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007년 시즌 첫 대회를 역전 우승으로 장식하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7연승의 기록을 이어나갔다.

2년만에 PGA 투어 무대를 다시 밟은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공동 9위에 올라 시즌 첫번째이자 생애 두번째 ‘톱10’에 입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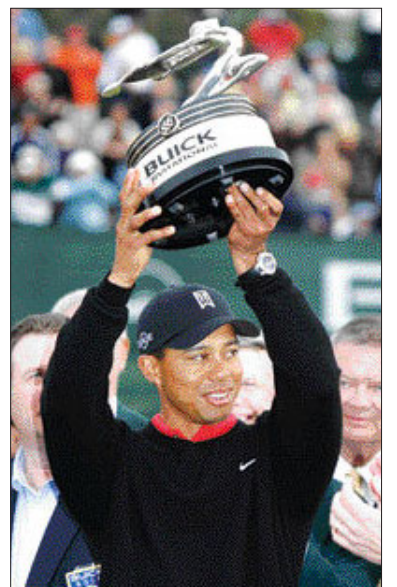
우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즈골프장 남코스(파72·7천60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함께 15언더파 273타로 정상에 올랐다.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55승째를 거둔 우즈는 93만6천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1개 대회만 치르고도 상금랭킹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달 간 겨울 휴가를 마치고 필드에 복귀하자마자 우승컵을 거머쥔 우즈는 작년 브리티시오픈부터 출전한 7차례 PGA 투어 대회에서 한번도 빼놓지 않고 우승을 차지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도중에 유럽프로골프투어 대회 2차례와 일본프로골프투어 1차례 등 3개 대회에서 우승을 놓쳤지만 PGA 투어 대회에서는 7연승을 달성한 것. 이로써 우즈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이런 넬슨(미국)의 PGA 투어 최다연승 기록(11연승)에 4승 차이로 다가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29일 열린 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하며 7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